

총체적 개념의 중국학을 위한 언어학의 역할과 대상에 관한 시론*

박찬욱**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국학 : Sinology와 Chinese Studies
3. 중국학 그리고 언어학의 역할과 대상
4. 나가며

【초록】

본고는 중국학을 위해서 언어학이 지향할 역할과 연구 대상에 대해 시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문 분야로서의 중국학은 중국에 관한 학문 정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유래와 지역 및 연구 대상의 상이함에 따라 중국학은 Sinology와 Chinese Studies란 명칭으로 각기 다르게 불려왔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중국학은 Chinese Studies로 범칭되는데, 학문 체계상 상위 학문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중국학은 여러 하위 학문 분과의 단순 병합이 아닌 공동의 연구 주제를 갖는 하위 학문 분과 간 유기적인 총체이어야 한다. 그 속에서 언어학은 향후, 중국의 제(諸)현상을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 기타 연구 분과들과 통섭을 도모하며 주제와 사고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견되는 글로벌언어로서의 중국어가 현 글로벌언어로서의 영어와 위세 상 어떤 지위 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중국학을, 중국에 국한한 중국학이 아닌, 일본, 한국, 인도, 필리핀 등 기타 국가학과의 관계를 고려한 아시아학의 하나로 위치시킬 때 이해 가능할 것이다.

【키워드】 중국학, 언어학, Sinology, Chinese Studies, 총체

* 본고는 2018년 11월 24일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중국학회 2018년도 추계 학술대회에서 “중국학으로서의 언어학에 대하여”란 제하로 구두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부족한 원고에 여러 유익한 조언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물론 본고 상의 존재하는 미비점은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zanxuvictory@daum.net)

1. 들어가며

어느 학자에게 전공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이에 누구도 ‘중국학입니다’라고 하는 학자는 없을 것이다.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사회학, 언어학, 문학, 철학 등, 소위 중국학의 분과학문을 들어 자신을 소개하지 자신의 연구분야로서 중국학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사회학, 언어학, 문학, 철학 등의 합(合)은 중국학일 수 있는가. 중국학의 하위분야로서 중국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사회학, 언어학, 문학, 철학 등’을 언급한다면 그것의 역인 합 역시 중국학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쉽게 ‘그렇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학’이란 혹시 우리가 설정한 하나의 개념적 정의에 불과한 것일까. 이 같은 질문을 품으니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 대학 | 단과대학 | 학과 |
|-------|----------|------|
| 경○대학교 | 문과대학 | 중국학과 |
| 원○대학교 | 인문대학 | 중국학과 |
| 창○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중국학과 |
| 부○대학교 | 인문사회과학대학 | 중국학과 |

모두 중국학과이다. 그런데 그것의 소속은 문과대학이나 인문대학인 경우도 있고 사회과학대학인 경우도 있으며 인문사회과학대학인 경우도 있다. 태초부터 그 단과대학 소속이었을 수도 있고 학과의 방향 변화나 통폐합 등의 이유로 그것의 명칭이나 소속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현상은 교육과 연구 대상으로서의 중국학이 과연 ‘인문’과 ‘사회’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더불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상의 중국학 관련 저널지들을 보면 그것의 분야구분 또한 위와 동일한 질문을 갖게 만든다. 아래 자료를 보자.

| 연번 | 대분야 | 중분야 | 학술지명 | 학술지 외국어명 | 발행기관명 |
|------|------|--------|--------------------------|-------------------------------------|----------------|
| 356 | 인문학 | 중국어외문학 | 중국학논총 | JOURNAL OF CHINESE STUDIES |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
| 357 | 인문학 | 중국어외문학 | 중국학 | Chinese Studies | 대한중국학회 |
| 365 | 인문학 | 중국어외문학 | 중국학연구 | | 중국학연구회 |
| 366 | 인문학 | 중국어외문학 | 중국연구 | |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 367 | 인문학 | 중국어외문학 | 중국학논총 | The Journal of Sinology | 한국중국문화학회 |
| 373 | 인문학 | 중국어외문학 | 중국학보 | the CHUNG KUK HAK PO | 한국중국학회 |
| 1175 | 사회과학 | 지역학 | Journal of China Studies | Journal of China Studies |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
| 1183 | 사회과학 | 지역학 | 중국과 중국학 | China and Sinology |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
| 1205 | 사회과학 | 지역학 | 현대중국연구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현대중국학회 |

<표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상의 중국학 관련 저널지명과 발행기관명¹⁾

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 https://www.nrf.re.kr/biz/journal/view?menu_no=13. <표1>은 「한

위 여섯 개 학술지의 대분야는 ‘인문학’, 중분야는 ‘중국어와 문학’이다. 하지만 아래 세 학술지의 대분야는 ‘사회과학’, 중분야는 ‘지역학’이다. 이 같은 점은 중국학의 범주 설정에도 혹시 ‘인문’과 ‘사회’라는 두 개의 기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더불어, 중국학을 Sinology와 Chinese Studies(또는 China Studies)로 각기 다르게 지칭하는 현상은 중국학이 함의하는 바가 상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질문은, 양자 간 경계를 넘은 총체적 단위로서 중국학이 갖는 목표 설정은 가능할까,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든 언어가 그것의 토대를 이룬다면 어·문, 그 중에서도 언어학은 중국학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로 확장될 수 있다.

본고는 이들 질문과 관련하여, 중국학의 명칭과 대상 및 범위 등을 살펴본 뒤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중국학과 아시아학으로서의 중국학을 상정하고 그 속에서 언어학이 가질 수 있는 역할과 대상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2. 중국학 : Sinology와 Chinese Studies

중국학의 명칭과 지칭 범위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중국학하면 국학(國學), 경학(經學), 제자학(諸子學), 한학(漢學), Sinology, Chinese studies, China studies 등의 명칭이 연상된다. 이 중에서 국학과 경학 및 제자학이 중국 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문·사·철 중심의 전통문화연구라면 한학, Sinology, Chinese studies, China studies 등은 외국 학자들에 의한 전통문화연구 또는 문·사·철을 포괄하는 중국 전반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陸昌萍 2017, p.4). 우선 ‘國學’에 대한 『現代漢語詞典』(第六版, p.497)의 정의를 살펴보자.

“稱我國傳統的學術文化, 包括哲學、歷史學、考古學、文學、語言文字學等。

(본국의 전통적인 학술 문화를 가리킨다. 철학, 역사학, 고고학, 문학, 언어문자학 등이 포함된다.)”

상기 정의에 제시된 개별 학문 분야들로 미루어 보면, 풀이된 국학의 중심이 문학·사학·철학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것의 뿌리가 경학이었던데 기인한다고 보는데, 관련하여 『중국어사상문화사전』(溝口雄三 등 2011, p.629, p.653)상의 풀이를 참고해 보자.

“[경학 經學] 청 말, 경학은 제자학·송 명리학과 문학까지 포괄하여 중국 고유 학술의 총체로서 국학國學 혹은 국고國故라 불리며 중국 고전학으로 탈피했다.”(p.629)……

“[제자학 諸子學] 청말·민국 초에 경학·사학의 학문 방법을 이용하여 그 연장선에서 확립된 전국 시대의 사상과 학술을 연구하는 학문의 하나다. 국학國學(國故學)은 자학子學·제자백가

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에서 ‘중국학’, ‘Sinology’, ‘Chinese studies’, ‘China studies’로써 검색한 결과이다. 다만, 『중국연구』는 이들 검색어로는 제외되지만, 이어진 연번을 근거로 KCI 상에서 검색한 결과 “Journal of Sinology and China Studies”로 표기되어 있어 부가하였다. KCI: <http://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001019&from=sereDetail>.

학諸子百家學이라고도 칭하며, …… ”(p.653)

이로써 국학은 경학이 그 연구대상을 문학의 제분야로까지 확대시키면서 과거 경(經) 본위였던 명칭이 변경된 결과이며, 그 결과 국고학(國故學) 또는 제자학(諸子學) 등으로도 불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학은 다음과 같이 『現代漢語詞典』(第六版, p.497)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國學，是以先秦經典及諸子百家學說為根基，它涵蓋了兩漢經學、魏晉玄學、隋唐道學、宋明理學、明清實學和同時期的先秦詩賦、漢賦、六朝駢文、唐宋詩詞、元曲與明清小說並歷代史學等一套完整的文化、學術體系。中國歷史上「國學」是指以「國子監」為首的官學，自「西學東漸」後相對西學而言泛指「中國傳統思想文化學術」。

(국학은 선진 경전 및 제자백가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양한 경학, 위진 현학, 수당 도학, 송명 이학, 명청 실학, 그리고 같은 시기의 선진 시부, 한부, 육조변문, 당송시사와 원곡, 명청 소설, 나아가 역대 사학 등을 포괄하는, 하나의 완전한 문화, 학술 체계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국자감’을 중심에 둔 관학으로서 ‘국학’이 지칭되었으나 ‘서학동점’이후부터는 서양 학문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 문화, 학술’로 범칭되었다.)”

— 『百度百科』²⁾

국학의 대상이 외국인의 관점에서 연구되면 한학(漢學), 그 중에서도 협의의 한학으로 불린다(陸昌萍 2017, p.3). 한학은 협의의 한학과 광의의 한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Sinology와 대응되는 협의의 한학은 ‘인문’을 중심으로 중국의 고대문헌과 경전을 연구하는 영역을 가리키고, Chinese Studies(또는 China Studies)로 대응되는 광의의 한학은 ‘사회’를 중심으로 중국의 현·당대 문제를 논하는 연구 영역을 가리킨다(陸昌萍 2017, pp.3-4). 여기서 협의의 한학은 그대로 漢學이란 명칭으로써 Sinology와 대응시키고 광의의 한학은 中國學란 명칭으로써 Chinese Studies와 대응시키기도 한다(張西平 2011, pp.1-6).

Sinology와 Chinese Studies 간 구분은 시대와 지역적 측면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그것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으나 16세기부터 이어진 유럽 선교사들의 중국연구나 19세기 프랑스의 정식 한학 강좌 개설 등에 사용된 것을 볼 때, Sinology는 주로 유럽 중심의 한학을 가리키던 용어였다고 본다(張西平 2011, pp.2-4; 陸昌萍 2017, p.7) 이에 반해 Chinese Studies는 자연 및 사회과학 방법론의 발달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중미 관계 변화 등에 따라 다각적인 중국 연구 수요에 부응한 결과로서 출현하였다고 본다(張西平 2011, p.6; 陸昌萍 2017, pp.7-8). 유럽의 중국 연구가 고전문헌 중심이었다면 미국의 중국 연구는 자본주의의 확대와 문화의 침투 등 자국의 국제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 문제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³⁾

‘협의의 漢學—Sinology—漢學 vs. 광의의 漢學—Chinese Studies—中國學’는 인문과학 중심이나 사회과학 중심이나에 따른 구분이었고 그 중에서의 ‘Sinology vs. Chinese Studies’는

2)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国学/128562>.

3) 「漢學400年」(속 侯且岸의 대답문 중에서), 『騰訊新聞—北京日報(2005. 12. 30.)』. 侯且岸는,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는 Sinology가 구시대적인 느낌을 갖는다고도 하였다.

시대와 지역에 따른 분류이기도 했다. 나름의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외의 중국 연구를 국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중국 본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예컨대, 전자의 경우, Wordnik에서는 Sinology를 “중국의 역사와 언어, 문화에 대한 연구(The study of the history, language and culture of China)”⁴⁾로 정의하고 있어 상기 (협의의)漢學와 일치한다. 하지만,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는 Sinology를 “중국의 언어, 역사, 관습, 정치에 관한 연구(The study of Chinese language, history, customs, and politics)”⁵⁾로 풀이함으로써 흡사 Chinese studies와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⁶⁾ 또 세계중국학회를 영어로는 World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로 부르지만 중국어로는 世界漢學研究會로 칭하고 있기도 하다⁷⁾.

반면에 후자의 경우, 張西平(2011, pp.7-8)에 따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데, 먼저 국외의 중국역사문화연구를 漢學로, 국내의 중국역사문화연구를 國學로 칭하자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 국외 중국연구는 모두 中國學로 부르자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국 산업혁명 이전의 국외 중국문화연구는 漢學, 그 이후의 중국문화연구는 中國學, 그리고 사회과학 중심의 중국연구는 現代中國的研究라고 칭하자는 견해가 있다. 첫째 견해는 ‘Sinology-漢學’, 두 번째는 ‘Sinology와 Chinese Studies-中國學’, 세 번째는 ‘산업혁명 이전의 Sinology-漢學, 이후의 Sinology-中國學, Chinese Studies-現代中國的研究’로써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張西平(2011, pp.8-9)). 상기 현상은,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Sinology와 Chinese Studies 간의 정의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표 1에서 보듯, Sinology와 Chinese Studies 중에서 어떤 명칭을 쓰든지 그것을 ‘한학’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모두 ‘중국학’과 연결시키는 현재의 한국 상황과도 맥을 같이 한다.⁸⁾

논의의 진전을 위해, 양자를 어원적 측면에서도 살펴보자. Sinology의 ‘-ology’는 어원적으로 “지식, 과학의 분과(branch of knowledge, science)”⁹⁾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것이 따라붙는 말엔 “어떤 대상, 특히 과학적인 대상에 대한 연구(the study of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scientific)”¹⁰⁾란 의미를 갖는다. 이에 ‘Sino-’와 ‘-ology’가 결합된 Sinology는 독자적 측면에서 ‘중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과)’을 가리킨다. 이를 앞서 언급된 협의의 한학 연구와 연계시켜보면, Sinology의 Sino-가 가리키는 것은 중국의 모든 것이 아닌, 중국 문헌 기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하면, ‘중국 고대 경전 및 제자의 기록들을 토대로 인간/사회 현상에 관한 보편 원리를 궁구하려던 학문 분과’가 과거 Sinology의 시발

4) Wordnik, <https://www.wordnik.com/words/sinology>.

5)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en.oxforddictionaries.com>.

6) Wikipedia, <https://ko.m.wikipedia.org/wiki/중국학>.

7) 世界漢學研究會(World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http://china-studies.com/>.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한학(漢學)’은 현재 “1) 한문을 연구하는 학문=한문학, 2) 한문 및 중국어에 관한 학문=한자학, 3) 중국 한나라·당나라 때의 훈고학을 송나라·명나라 때의 성리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기 ‘漢學인가 中國學인가’란 중국 연구의 명칭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아울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 상에서도 ‘한학’을 검색하면 ‘북한학’의 일부로만 검색될 뿐 학문명으로서의 ‘한학’은 검색되지 않는다.(https://www.nrf.re.kr/biz/journal/view?menu_no=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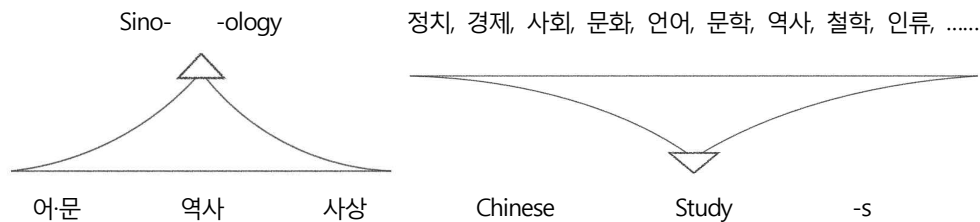
9)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

10) Pearson Education,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5th), 2009(iPad App 버전).

점이며, 해석과 고증 및 비평 등이 그것의 목적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Chinese studies는 Chinese study의 복수형이다. Chinese와 관련된 특정 학문 분과들의 통칭으로서의 Chinese studies이다. Chinese studies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적으로 강대해진 미국이 역시 영향력이 커져가는 중국을 상대로 긴장된 관계 해소와 자국의 이익 증진 등을 고려하여 1950년대 국가전략에 부응하는 지역 연구의 수요로부터 비롯된 학문 분야이다(陸昌萍 2017, pp.318-319). 지역 연구였던 이유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에 바탕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했고(陸昌萍 2017, pp.319-320) 그 결과 오늘날 Chinese studies란 명칭으로 여러 학문들이 모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지역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어·문학 역시 그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Sino- vs. Chinese’, ‘-ology vs. study’로써 양자를 각각 등가로 둔다면 그것이 어느 것으로 불리든지 무관하겠으나 -ology가 나름의 일관된 내부 체계와 방법론을 함의한다는 점과 오늘날 지칭되는 연구의 범위와 전공의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학을 Chinese studies로 부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자에 대한 상기 논의를 정리하면, Sinology와 Chinese Studies의 하위 분야 간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1> Sinology와 Chinese Studies의 범위와 관계

<그림1>은 Sinology가 문·사·철의 각 사유 대상이 일관된 내부 체계와 방법론에 의해 연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Chinese studies는 중국과 연관된 여러 개별적 학문 분야가 하나의 이름으로 통칭되는 것을 보여준다. Chinese studies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란 지역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 학문 분과별로 각각의 방법론을 채택하고 분석과 해석을 가한다는 점에 서, 그것의 소급 범위를 가늠하는 데도 ‘이것도 중국학에 포함되는가’란 물음보다 ‘그 결과는 중국(이란 지역) 연구에 기여하는가’란 물음이 더 중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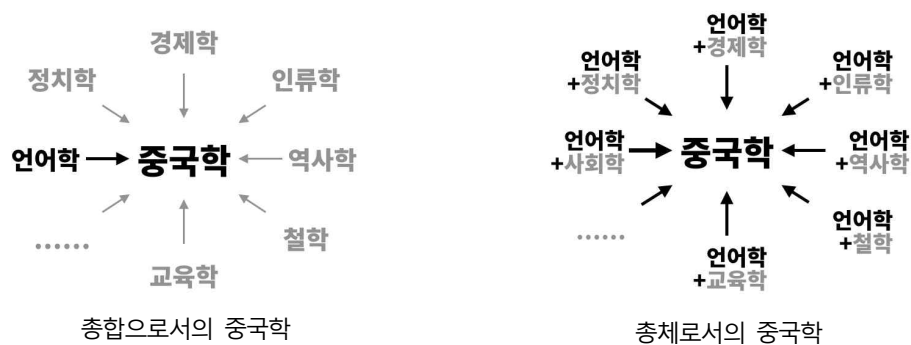
3. 중국학 그리고 언어학의 역할과 대상

1) 중국학의 성격

앞서 ‘중국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사회학, 언어학, 문학, 철학 등의 합(合)이 곧 중국학일 수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그것이 ‘중국 연구에 기여하는가’에 따른, 소급 범위의 개방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하위 연구 분과들의 합을 곧 전체로서의 상위 학문 분야로 환원시키기 힘들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차원에서 ‘중국학’이란 통칭이 허용된다면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중국학이 갖는 목표 또한 그에 맞게 설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여러 연구 분과들이 무엇을 목표로 할 때 총체로서의 한 학문으로 불릴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세균(2011, p.13)이 학문의 세분·전문화와 융·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정치학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정치학은 원래 사람들의 사회적 삶의 단위로 기능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 원리와 작동 방식 등을 해명하고 그 공동체 전체의 재생산이나 변화에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는 통합 학문의 성격이 강했었다. 그러다가 학문의 세분화·전문화 과정이 진척됨과 더불어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은 점차 선거나 의회 정치와 같은, 다른 사회 과정들과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정치 과정 그 자체만을 연구하는 ‘분과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으로 변모하게 된다. 정치학을 권력 관계 그 자체만을 연구하는 ‘순수’ 정치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 역시 정치학 고유의 주제를 탐구하려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본고는 상기 김세균(2011, p.13)이 언급한 “정치학은 원래 사람들의 사회적 삶의 단위로 기능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 원리와 작동 방식 등을 해명하고 그 공동체 전체의 재생산이나 변화에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는 통합 학문”이란 정의가, 상당히 거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중국학을 ‘중국어(정치, 경제, 문화, 언어 등의) 공동체 내에서 구조적 속성과 작동 원리 등에 관련된 제(諸)현상들의 생산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그에 요구되는 지식을 탐구하는 통합 학문’ 정도로 정의할 경우 총체로서의 중국학 아래 여러 관련 학문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림2> 중국학과 언어학 간 관계

<그림2>에서 왼쪽은 언어학을 중국학의 하위 학문 분과 중 하나로 설정한 것이고 오른쪽은 기존 학문 분과들과 융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언어학을 설정한 것이다. 둘 다 중국학을 보여주고 있으나, 왼쪽은 총합으로서의 중국학을, 오른쪽은 총체로서의 중국학을 보여준다.

총체로서의 중국학이란 상정(想定)이 가능하다면, 중국학이 ‘인문’과학의 영역인가 아니면 ‘사회’과학의 영역인가란 이분법적 질문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 대신, 그것이 중국이란 제한된 공간에 국한되어 드러날 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사회·문화적 현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 영역이 통합된 “인간과학”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김세균 2011, p.11).

이 같은 관점은 기존의 중국학에, 중국학을 분과 학문들의 선형적 나열이 아닌 총체로서의 중국학일 수 있으려면 ‘섞임’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관찰에 기대어 보면, 현재 중국학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분석과 비판, 설명과 이해가 진지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세분화와 전문화가 지속적으로 지향되어 온 데 반해 그에 대한 반작용적 연구, 다시 말해, 총체적 또는 학제적 연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 점을 반추할 때 중국학으로서의 언어학은, 인문적 중국학에서든지 사회적 중국학에서든지 어(語)는 늘 그것의 사유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타 세부 학문 분야보다 학문 간 섞임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학의 성격은 또 다른 관점에서 상정이 가능하다. 즉 총체적 개념의 중국학은 그 자체가 하나의 학문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학이 중국이란 지역 기반의 학문이라면 중국보다 더 큰 지역 개념의 지역학도 가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학을 그것의 일원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개별적인 이해는 중국이 포함된 더 큰 지역 내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모든 언어에 나타나는 일반성과 몇몇 언어에만 출현하는 개별성은 하나의 언어에 국한했을 때는 알 수 없다. 개별 언어학이 한 언어로 관심 대상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그 언어가 기타 언어와 맺은 교류와 영향, 유형적 특징, 위세적 관계 등은 그 언어와 마주하고 있는 기타 언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을 견지할 때, 우리는 중국보다 넓은 지역, 즉 아시아에 대한 연구로서 아시아학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림3> 아시아학과 중국학 간 관계

<그림3>은 중국을 보는 관점의 확대(zoom-out)이다. 횡렬을 보면,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설명하는 공동의 방법론과 이론이 하나의 체계가 되어 각각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등을 이룬다. 또한 그것들이, 종렬과 같이, 국가를 분석·이해하는 틀로서 유기적 연결을 이룬다면 Chinese studies, Indian studies 등이 된다. 그리고 이들의 횡적, 종적 연결이, 한 국가를 넘어선 지역 개념으로 확대될 때 다시 한 번 더 큰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Asian studies가 구성된다.

다시 비유하자면, 횡적으로, 한 언어의 음운은 그 나뭇의 규칙도 있고 다른 언어와 규칙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공동의 방법론과 이론이 음성학, 음운론을 구성한다. 형태와 통사 상에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존재한다. 하지만 종적으로, 각 개별 단위 간 유기적 결합이 하나의 총체를 구성하면, 음운, 형태, 통사 단위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음운 결합이 의미를 발생시켜 형태 단위를 발생시키고 형태 단위에 어조를 얹어 통사 단위를 구성한다. 그 결과 총체로서의 한 언어가 상호작용 도구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 언어는 다른 언어와의 비교 속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분석 단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사용되는) 공동체(국가-지역-세계) 속에서 기타 언어와 어떤 경쟁을 벌이고 그 결과로서 얼마나 확대되고 축소되는지, 그에 따른 사용 범위와 지위를 지속적으로 재부여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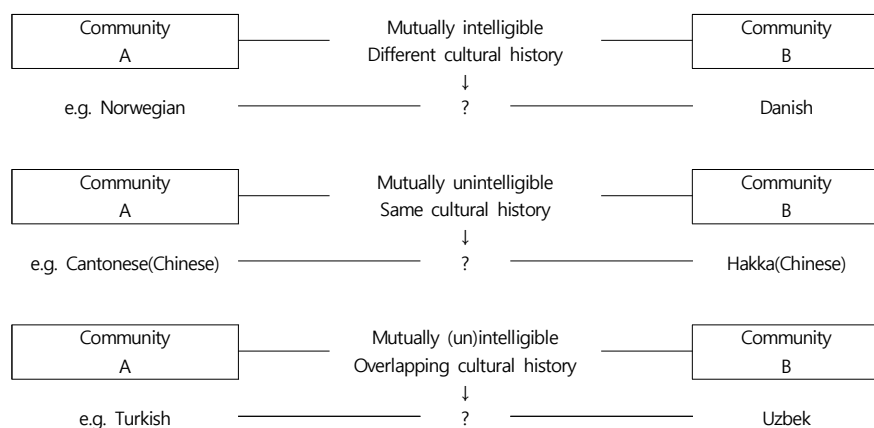
중국(및 그 속에서 일들)을 분석과 이해의 대상으로 놓는 중국학이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면 언어학의 역할과 대상도 ‘중국’의 언어를 중심으로 설정된다. 당연히 이것은 이것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우리의 시계(視界)를 아시아로 넓히면, 중국은 아시아의 한 국가로서 다른 이웃 국가들과 교류하고 경쟁하고 영향을 확대·축소시키는 역동적 분석 대상이 된다. 이 때 언어학의 역할 중 하나는 중국어가 아시아란 지역 속에서 기타 언어와 어떤 경쟁을 벌이고, 그 결과로서, 어떤 위세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관찰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 언어학의 대상은, 어떤 언어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봐야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언어가 아닌 ‘중국의 언어’로 재설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분석을 위해 언어학은 때론 정치학이나 경제학과 또 때론 사회학이나 인류학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2) 중국학에서의 언어학

그렇다면 총체적 개념의 중국학을 위해 언어학의 주목이 필요한 대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례로 본고에서는 언어의 가치와 경쟁을 들 수 있다. 중국어 및 중국어 학습이 갖는 가치와 중국어가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영어와 벌이는 경쟁이 그것이다. 이들 양자에 대한 관찰은, 먼저 앞서 논의된 총체적 개념의 중국학과 아시아학을 전제하면서, 언어(또는 변종)에 대한 거시적, 도구적, 기능적 관점의 견지와 사용 지역에 대한 경제, 정치적 해석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

(1) 언어의 가치

총체적 개념의 중국학 관점에서 보면, 어느 변종이 상대적으로 위세를 갖고 또 공용어로 선택되는지는 언어와 방언을 모두 하나의 변종(variety, 變體)으로 간주하고 그들 간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 즉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이해 가능하다. 보통화와 광둥어 간의 연관성은 언어적 측면에서 통시적 관점에 기대어 설명 가능하지만, 양자 중에 왜 어떤 변종은 공용어 지위를 갖는 반면 어떤 변종은 그렇지 못한가, 또는 말이 그토록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는 언어적 측면에만 의지해서는 이해가 쉽지 않다. 관련하여, 아래 Crystal(1997, p.289)이 제시한 도표를 살펴보자.



<표2> 언어—방언 간의 관계 유형(Crystal 1997, p.289, 다섯 가지 유형 중 일부 발췌)

<표2>는 ‘이해가능성(intelligible)’과 ‘문화적 역사(cultural history)’란 기준에 근거해 분류한 언어—방언 간의 5가지 관계 유형(Five Types of Relationship between Dialect and Language)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중 두 번째 항은 광둥어와 객가어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상호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동일한 문화적 역사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Chinese, 즉 한어의 한 방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첫 번째 항은 이와 정반대다. 노르웨이어와 덴마크어는 상호 이해가 가능하지만 각기 다른 문화적 역사에 기대어 있는 탓에 두 개의 다른 언어로 인식된다. 세 번째 항은 그 중간에 해당된다. 터키어와 우즈베크어는 상호 간에 부분적으로 이해도 가능하고 문화적 역사도 공유한다. 하지만 모두 독립한 국가의 언어로서 두 개의 다른 언어로 분류된다.

흔히 우리는, 한국어는 한국, 중국어는 중국 하는 식으로, 특정 개별언어를 특정 개별국가와 습관적으로 연결 짓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표 2는 ‘언어’란 개념이 단지 언어학적 기준에 의해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학적 기준, 즉 이해가능성만을 고수할 경우 오히려 노르웨이와 덴마크어는 동일한 언어로, 광둥어와 객가어는 각기 다른 언어로 분류되는 등, 현존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언어와 방언’ 또는 ‘서로 다른 두 언어’란 말에는 언어학적 기준 이외의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함의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 같은 요인들의 개입으로 인하여, “(언어에는)가치의 차이, 등급, 격차가(井上史雄[김덕호

등 역 2015, p.34])” 발생한다.¹¹⁾ 보통화는 공용어라는 지위로 인해 그 보급이 국가에 의해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된 데 힘입어 가장 넓은 사용 범위를 갖는다.¹²⁾ 영어를 학습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딜 가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인 것처럼, 사용 범위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학습의 수요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그 같은 수요의 증대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경제 활동에서 더 많은 기회와 수입에 얻고자 하는 바람에 기인한다. 이를 경제언어학적 해석에 기대면, 중국어 학습은 학습자 자신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Grenier 2015, p.1). 즉, 외국어 학습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보다 나은 “경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에 필요한 여러 능력들 중 하나를 재고(在庫)”¹⁴⁾해 놓는 것이다. 때문에 언어에 대한 지식은 이 같은 관점에서 하나의 기술(skill)로서 간주된다(Zhang & Grenier 2012, p.7).

상기 관점에서, 중국어는 수익 창출에 관여하는 경제재로서 기능한다(井上史雄[김덕호 등 역 2015, pp.34-35]). 여러 경로를 통한 중국어 교육은, 교육자 입장에서는 언어를 판매하는 것이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경제활동이다. 교육자는 언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학습자는 그것을 돈을 주고 구매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증대를 꾀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어는, 교육이란 경제활동 속에서, 교육자에게는 생산재로서 또 학습자에게는 (내구)소비재이자 생산재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井上史雄[김덕호 등 역 2015, pp.35-37]). 보통화 학습에는 기꺼이 지불하지만 광둥어에 상대적으로 인식한 데는, 상기 투자의 관점에서, 학습 활동 결과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 즉 취직이나 승진 등에 있어 차이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언어 학습이 경제에만 국한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례에 불과한 것으로, 그 외 정치언어학적으로 또 사회언어학적으로도 해석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특히 「中華人民共和國國家通用語言文字法」에서 ‘사회’, ‘민족’, ‘경제’, ‘국가’, ‘통일’ 등을 직접 명시하며 국가 공용어의 기능과 역할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¹⁵⁾ 국내외 사용과정 중에 출현하는 제(諸)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은 총체적 개념의 중국학에서 언어학이 기타 학문과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2) 언어 간 경쟁

11) 부연하면, 井上史雄[김덕호 등 역 2015, p.34]는 모든 언어가 평등하다는 생각은 이론적 차원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언어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12) 「中華人民共和國國家通用語言文字法」: “第三條 國家推廣普通話”, “第六條 國家頒布國家通用語言文字的規範和標準, 管理國家通用語言文字的社會應用, 支持國家通用語言文字的教學和科學研究, 促進國家通用語言文字的規範、豐富和發展。”(http://www.gov.cn/ziliao/flfg/2005-08/31/content_27920.htm).

13) 井上史雄[김덕호 등 역 2015, p.35]는, 기타 실물 경제제와는 달리,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예를 들어 영어)의 인기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경제제로서 존재하면서도 희소성에 따른 가격 상승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물 경제제와 그 특징을 달리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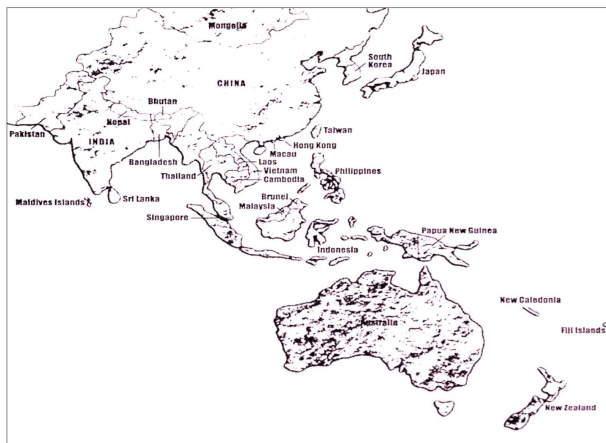
14) Wikiwand, https://www.wikiwand.com/en/Human_capital.

15) 「中華人民共和國國家通用語言文字法」: “使國家通用語言文字在社會生活中更好地發揮作用, 促進各民族、各地區經濟文化交流(第一條)”, “國家通用語言文字的使用應當有利於維護國家主權和民族尊嚴, 有利於國家統一和民族團結, 有利於社會主義物質文明建設和精神文明建設(第五條)”(http://www.gov.cn/ziliao/flfg/2005-08/31/content_27920.htm).

다음으로, 총체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중국어가 아시아에서 영어와 갖는 경쟁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의 경제 부상에 따른 중국어의 미래 위상을 논할 때면 흔히 그것이 영어와 견주어 세계어(global language)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곤 한다. 이는 그만큼 언어의 사용이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실 경제는 세계어가 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일 뿐 절대적 지배요인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Chan(2016, 페이지 미기입, Table.2)은 여행 가능성(geography), 경제 참여도(economy), 대화 관여도(communication), 지식과 매체 소비도(knowledge & media), 국제 관계 관여도(diplomacy) 등 다섯 가지 기준에 근거한 위세 지수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Rank | Score | Language | Native (MM) | Geography | Economy | Communication | Knowledge & Media | Diplomacy |
|------|-------|------------|-------------|-----------|---------|---------------|-------------------|-----------|
| 1 | 0.889 | English | 446.0 | 1 | 1 | 1 | 1 | 1 |
| 2 | 0.411 | Mandarin | 960.0 | 6 | 2 | 2 | 3 | 6 |
| 3 | 0.337 | French | 80.0 | 2 | 6 | 5 | 5 | 1 |
| 4 | 0.329 | Spanish | 470.0 | 3 | 5 | 3 | 7 | 3 |
| 5 | 0.273 | Arabic | 295.0 | 4 | 9 | 6 | 18 | 4 |
| 6 | 0.244 | Russian | 150.0 | 5 | 12 | 10 | 9 | 5 |
| 7 | 0.191 | German | 92.5 | 8 | 3 | 7 | 4 | 8 |
| 8 | 0.133 | Japanese | 125.0 | 27 | 4 | 22 | 6 | 7 |
| 9 | 0.119 | Portuguese | 215.0 | 7 | 19 | 13 | 12 | 9 |
| 10 | 0.117 | Hindi | 310.0 | 13 | 16 | 8 | 2 | 10 |

<표3> 강대어 지수 순위(Power Language Index ranking[Chan 2016, 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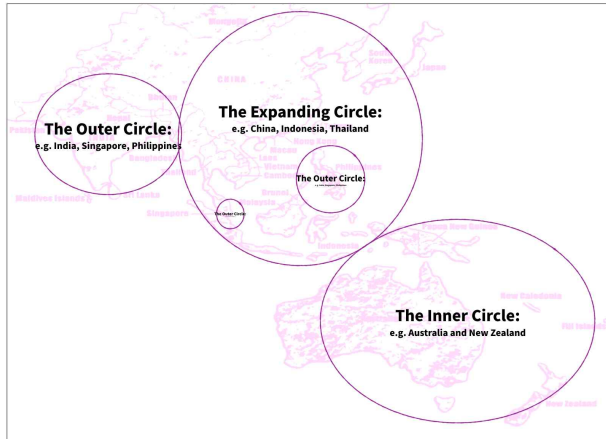


<그림4> 확대된 아시아 지도
(Map of Greater Asia[Kachru, 2005, p.xxiv])

2010) 중국어가 단기간 내 아시아 내에서 국제 공용어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한 고려를 위해, 본고는 Kachru(2005)에서의 ‘확대된 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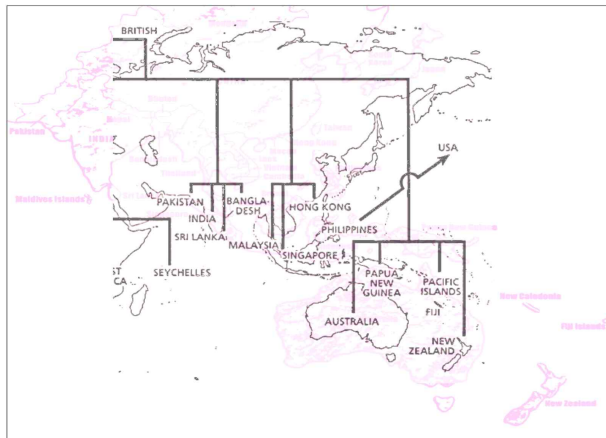
<표3>에서 중국어는 제2강대어(power language)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어는 일찍이 아시아의 강대어 중 하나로서 예견되기도 했고(Graddol 1997, p.59; 강현석 2014, p.15) 또 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이 논의되기도 했다(박찬욱 2016). 하지만 표3에서 보듯, 영어와 중국어 간 지수(score)가 여전히 0.889 대 0.411 로써 두 배의 차를 보이고 있고 또 ASEAN 국가들 간 공용어 선택 및 사용 상황을 고려해 보면(Kirkpatrick

아(greater Asia)’를 논의의 바탕으로 두고자 한다. 그것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영어 사용 상황과 중국어 사용 상황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그들 간의 경쟁 관계를 검토해 본다.



<그림5> 확대된 아시아에서의 영어 동심원
(Three Concentric Circles of Asian Englishes
[Kachru 2005, p.14])

의 하나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등지가 속하며 확장원에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중국, 태국, 대만, 한국 등지가 속해있다(Kachru 2005, p.14). 흥미로운 점은, 내심원부터 확장원까지, 아시아의 영어 변종들이 모두 외지로부터 이식된(transplanted) 결과



<그림6> 확대된 아시아에서 미국과 영국 영어의
영향력 가계도 일부(Crystal 2003, p.70)

Kachru(2005)는 아시아 내의 영어들(Englishes)에 대해 논하면서 세 개의 동심원(concentric circles) - 내심원(the inner circle), 외심원(the outer circle), 확장원(the expanding circle) - 으로써 영어사용 국가들을 묶어냈다(Kachru 2005, p.14, figure 2.1). 그가 제시한 세 동심원을 <그림4>에 대입해 보면 대략 <그림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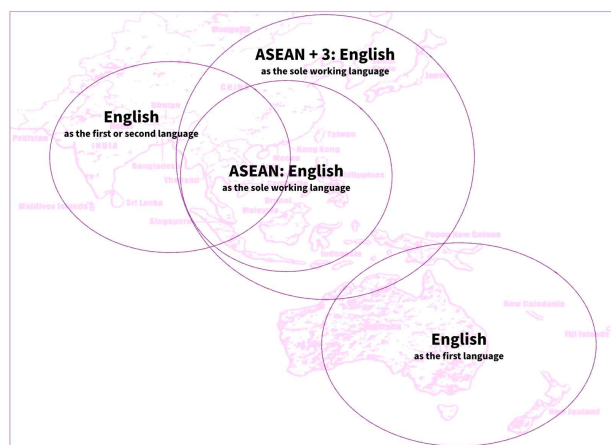
내심원에는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외심원에는 제도화된 부가어(institutionalized additional language), 즉 공동 공용어 중의 하나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등지가 속하며 확장원에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중국, 태국, 대만, 한국 등지가 속해있다(Kachru 2005, p.14). 흥미로운 점은, 내심원부터 확장원까지, 아시아의 영어 변종들이 모두 외지로부터 이식된(transplanted) 결과라는 점인데(Kachru 2005, p.15), 이는 Crystal(2003, p.70)이 제시한 영어 영향력 가계도를 <그림4>에 대입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¹⁶⁾

<그림6>은, 내심원의 호주와 뉴질랜드 및 기타 도서지역, 외심원의 인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 확장원의 홍콩 등지는 영국 영어로부터 이식되었고 그 외 외심원의 필리핀은 미국 영어로부터 이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외심원 내에서도 인도는 영국, 미국과 더불어 주요한 영어 사용국(major English-using country)이고 싱가포르와

16)<그림6>의 가계도 원제는 원래 “A family tree representation (based on a model by Peter Strevens) of the way English has spread around the world, showing the influence of the two main branches of American and British English”와 같이 길다.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그림 제목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각주로 제시한다.

같은 일부 지역은 영어를 점점 제1언어로 사용하는 과정에 있다(Kachru 2005, p.15).

뿐만 아니라, 더욱 눈여겨 볼 점은, 이중 언어 또는 다중 언어 습득의 중요 매개어로서 영어가 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Kachru 2005, p.15). 이 같은 수요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에서도 영어를 유일 통용어(the sole working language)로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맥을 같이하며, 이는 반대로, 23개의 통용어가 존재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비교되기도 한다(Kirkpatrick 2010, p.7).



<그림7> 확대된 아시아에서의 영어사용과 ASEAN

ASEAN에서 갖는 영어의 지위를 앞서 Kachru(2005, p.14)가 제시한 영어의 세 동심원에 대입할 경우(<그림 5>) 확대된 아시아 지역에서 영어가 가진 지위는, 특히 공식 석상에서의 통용어로서, 상당히 굳건함을 볼 수 있다.

앞서 보았듯, 내심원 국가들에서 영어는 제1언어이다. 외심원에서도 영어는 제도상 요구되는 제1 또는 제2 언어이다. 이는, 이들 지역에서 영어를 기본적으로 습득하지 않으면 또는 학습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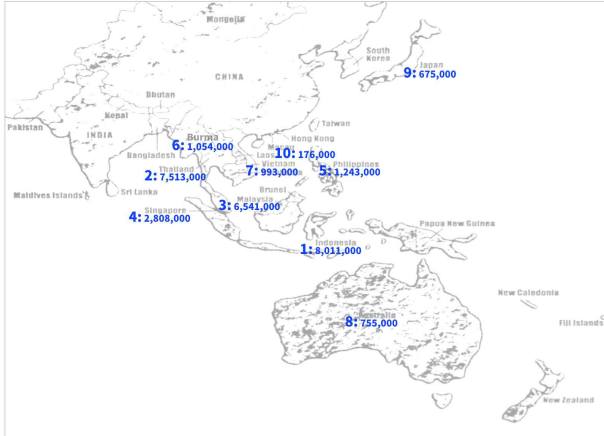
도적 측면에서 불평등 구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하수 2008, p.239). 반면에, 확장원에서는 영어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수요에 따라 학습할 수도 학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외국어로서 기능한다. 이는 상기 두 동심원의 상황과 달리 학습의 여부가 사회·제도적 측면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ASEAN이란 경제(·외교) 석상에서는 영어가 통용어로서 기능하고, 한국, 중국, 일본이 더해진 ASEAN+3이라고 하더라도 통용어로서의 영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현 시점에서 아시아 전역에 걸친 영어의 영향력은 확산된 범위로 보나 통용어로서의 지위로 보나 상당히 공고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확대된 아시아에서의 중국어 사용 상황을 살펴보자. 중국어는 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지위 역시 향상되었다. 예컨대, 중국어는 Graddol(1997, p.59, Table.19)에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어, 스페인어 다음으로 6위의 영향력을 보였었다. 지수값에서도 영어와 중국어는 100 : 22로써 약 5배 차였다. 그러나 Chan(2016, 페이지 미상, Table.2)에서 중국어는 영어 다음의 제2강대어(power language)로 향상되었으며 지수 면에서도 0.889 : 0.411로써 약 2배로 그 차이를 좁혔다.

중국어의 이 같은 성장세와 더불어 오래전부터 아시아 전역에 걸쳐 진행됐던 화교들의 이산(diaspora)은 화어(華語)의 구성과 유지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지속해서 불러 모았다(郭熙 2004, 徐傑 등 2004, 李宇明 2014). 화어는 “현대한어의 보통화를 기준으로 한 중국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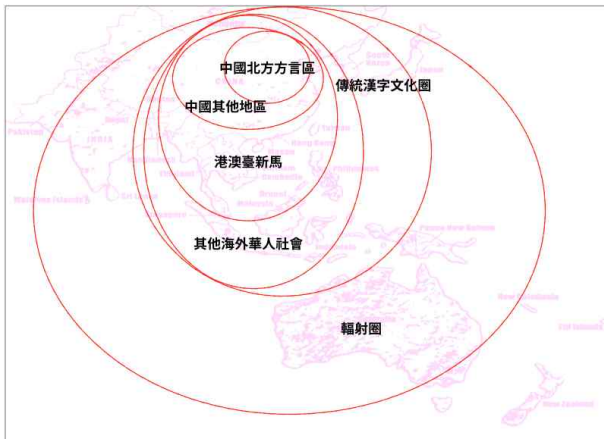
민족의 공동어(以現代漢語普通話爲標準的華人共同語[郭熙 2004, p.65])”로 정의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화교들 간에 특정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사용되는 공동어로서 통칭된다(徐傑 등 2004, pp.1~5).



<그림8> 확대된 아시아에서의 화교 분포 현황
(中華民國僑務委員會, 2011, p.13, <表2>)

17만여 명) 순이다.¹⁷⁾ <그림8>에서 보듯, 화교의 상당수는 확대된 아시아에서 소위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3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徐傑 등(2004, p.19)도 중국어에 대해, Kachru(2005)에서 제시한 동심원의 형식으로써, 확대



<그림9>. 확대된 아시아에서의 중국어(華語)와 동심원
(徐傑 등 2004, p.19)

홍·마·대·싱·말 지구(港澳臺新馬地區)로 확대된다. 다음으로, <그림8>과 같이, 화교들이 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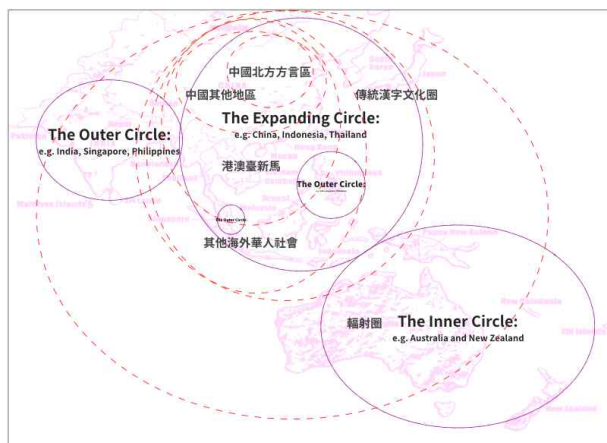
2011년 현재, 화교들의 이산 상황을 ‘확대된 아시아’에 인구수별 상위 10위까지 표기해보면 <그림8>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中華民國僑務委員會 2011, p.13, 表 2), 그 중에서 1위는 인도네시아로서 약 800만 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다. 2위는 태국으로 약 750만 명이, 3위는 말레이시아로서 약 650만 명이 거주한다.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약 280만 명), 필리핀(약 120만 명), 버마(약 100만여 명), 베트남(약 100만 명), 호주(약 75만 명), 일본(약 67만 명), 라오스(약

된 아시아를 기본 전제한 분포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그림 5, 6> 등에서 보인, 식민의 결과로서 이식된 영어의 상황과 달리 중국어는 중국 내 관화 방언구(中國北方方言區)에서부터 주변으로 점차 확대되는 동심원을 띠고 있다(徐傑 등 2004, p.19). <그림9>를 살펴보자.

동심원을 내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면, 핵심지역인 북방방언구(中國北方方言區)가 선행하고 그로부터 기타(남방)방언 지역들을 아우른 중국기타지역(中國其他地區),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통칭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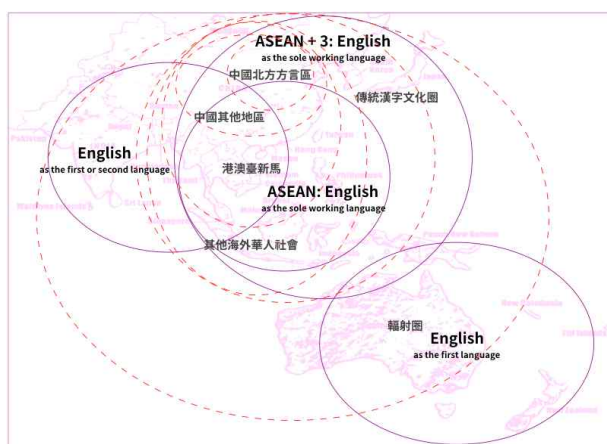
17)참고로, 2015년의 대륙별 화교 분포(中華民國僑務委員會 2016, p.10, 圖 1)를 보면, 2011년과 대비해, 아시아에서는 2.2% 감소한 반면, 미대륙 0.7%, 유럽 0.6, 아프리카 0.6%, 오세아니아 0.3%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그리고 많이 이산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일대(其他海外華人社會)로, 그리고 다시 한국, 일본 등 예부터 한자를 사용해온 전통한자문화권(傳統漢字文化圈)으로 확대된 뒤, 마지막으로 화어를 순수하게 외국어로 학습하고 사용하는 방사지대(輻射圈)의 형성으로 끝으로 맺는다.(徐傑 등 2004, p.19) 여기에 <그림8>의 이산 상황을 부가하면, 화어의 기본적인 지역 범위상,¹⁸⁾ 북방방언구(中國北方方言區)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일대(其他海外華人社會)까지가 민족 공동어로서의 화어 구성 특징을 가장 보여줄 것이다.



<그림10> 확대된 아시아에서의
영어 동심원과 중국어 동심원

영어를 사용하는 지대와 겹친다. 이는, <그림9>의 中國北方方言區부터 其他海外華人社會까지의 지역에서 일면, 중국어가 영어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또 확장을 꾀할 여지도



<그림11> 확대된 아시아에서의
ASEAN 공용어와 중국어 동심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확대된 아시아에서 영어와 중국어는 각자 나름의 동심원을 그리며 자신만의 사용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양자는 확대된 아시아의 상당한 지역에서 중첩되기도 한다. <그림5>와 <그림9>를 겹친 <그림10>을 보면, 중국어의 중심 지대(中國北方方言區부터 其他海外華人社會까지)가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확장원과 겹쳐 있다. 하지만 <그림7>과 <그림9>를 겹친 <그림11>에서는, 중국어의 중심 지대가 ASEAN에서 통용어로서

따라서 화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일대는, 한편으로, 각국의 상이한 언어사용 상황으로 인해 매개로서의 영어가 갖는 중요성이 점점 증가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전하는 중국 경제 및 이산된 화교들 간의 찾아지는 교류에 힘입어 매개로서의 중국어가 갖는 중요성 역시 커질 수 있다. 이같이 중국(中國北

18) 지역 범위가 아시아에서 전세계로 확대될 경우 화어(華語)는 다음과 같이 대화어(大華語)로 재정의된다. “소위 ‘대화어’란 보통화/국어에 기초한 전세계 중국 내·외 민족의 공동어이다(所謂“大華語”，就是以普通話/國語為基礎的全世界華人的共同語[李宇明 2016, p.1])”.

方方言區~中國其他地區)을 넘어 동남아시아일대(其他海外華人社會)에 걸친 지역에서 보이는 중국어와 영어 간의 경쟁 상황은, 중국이란 지역으로만 중국학의 대상을 제한할 때 인식하기 어렵다. 그것은 총체적 개념의 중국학이 아시아란 지역에서 위치가 재설정될 때 언어학이 다른 학문과 함께 고민해야할 대상일 것이다.

4. 나가며

중국학이란 말을 떠올리면 중국이란 국가가 먼저 연상된다. 중국 지역에 대한 학문인만큼 중국이란 수식어가 먼저 연상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중국을 학문의 대상으로 떠올릴 때, ‘국가’로서의 중국을 정치학이나 사회학 또는 경제학 등이 다뤄야 할 개념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일이다. 우리는 지금껏 언어 연구의 관련 개념으로서 국가를 설정했던 시도가 부족했다. 국가는 언어 연구자에게 있어 당연한 전제였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중국어를 연구함에도 ‘중국’어에 대한 고려보다는 중국‘어’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왔다.

총체로서의 중국학 그리고 언어학은 이제 언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공동체 - 사회, 국가, 지역 등 - 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문학의 기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제 영역과도 경계 넘기를 시도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확장되어야 한다. 중국을 그 자체의 단일 국가로서 볼 수도 있지만 한국과 대별되는 여러 이웃 국가 중의 한 국가로서 여길 수도 있고 아시아 제(諸)국가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국가로 볼 수도 있으며, 세계의 역학 관계 속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국가들 중의 하나로 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각도로 중국을 바라보고 접근할 때, 중국학을 위한 언어학은 급변하는 국가 간 역학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에 따른 언어별 힘의 관계 속에서 중국어가 점한 지위와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석, 「세계 주요 언어의 국제적 위상 변화 양상과 국내 외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함축」, 『언어과학 연구』 69, 2014.
- 溝口雄三 등 저, 김석근 등 역, 『중국사상문화사전』, 서울: 책과 함께, 2011.
- 김세균, 「들어가며」, 『학문간 경계를 넘어』, 김세균 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김하수, 『문제로서의 언어 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박찬욱, 「중국어의 위상변화와 한국의 중국어교육 방향에 대한 일고」, 『중국학』 57, 2016.
- 郭熙, 「論“華語”」, 『暨南大學華文學院學報』 第2期, 2004.
- 井上史雄 저, 김덕호 등 역, 『경제언어학—언어, 방언, 영어』, 서울: 역락, 2015.
- 李宇明, 「漢語的層級變化」, 『中國語文』 第6期, 2014.
- 李宇明, 「華人智慧華人情懷——序《全球華語大詞典》」, 『全球華語大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6.
- 陸昌萍, 『國外漢學概論』, 蕪湖: 安徽師範大學出版社, 2017.
- 徐傑, 王惠, 『現代華語概論』, 新加坡: 八方文化創作室, 2004.
- 張西平, 『西方漢學十六講』,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11.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第六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2.
- 中華民國僑務委員會, 『2011僑務統計年報』, 臺北: 中華民國僑務委員會, 2011.
- 中華民國僑務委員會, 『2015僑務統計年報』, 臺北: 中華民國僑務委員會, 2016.
- Chan, Kai L., *Power Language Index: Which are the world's most influential languages?*, http://www.kailchan.ca/wp-content/uploads/2016/12/Kai-Chan_Power-Language-Index-full-report_2016_v2.pdf, 2016.
- Crystal, David,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Crystal, David,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北京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Press, 2002년 영인본].
- Graddol, David, *The Future of English?*, UK: The English Company, 1997.
- Grenier, Gilles, The value of language skills: A common language facilitates communic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but linguistic diversity has economic and cultural value too, *IZA World of Labor*, 2015.(doi: 10.15185/izawol.205)
- Kachru, Braj B., *Asian Englishes beyond the Cano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5.
- Kirkpatrick, Andy,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ASEA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0.
- Pearson Education,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Fifth edition), 2009(iPad App 버전).
- Zhang, Weiguo & Gilles Grenier, How can Language be linked to Economics? A Survey of Two Strands of Research, *Working Paper in University of Ottawa*, 2012.(<https://socialsciences.uottawa.ca/economics/sites/socialsciences.uottawa.ca/economics/files/1206E.pdf>)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 https://www.nrf.re.kr/biz/journal/view?menu_no=13.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001019&from=sereDetail>.
-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国学/128562>.
- 『騰訊新聞 — 北京日報(2005.12.30.)』, [https://news.qq.com/a/20051230/000972.htm\(2018.11.9.검색\)](https://news.qq.com/a/20051230/000972.htm(2018.11.9.검색)).
-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ziliao/flfg/2005-08/31/content_27920.htm.

世界漢學研究會(World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http://china-studies.com/>.

Oxford English Dictionaries, <https://en.oxforddictionaries.com>.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

Wikipedia, <https://ko.m.wikipedia.org/wiki/중국학>.

Wikiwand, https://www.wikiwand.com/en/Human_capital.

Wordnik, <https://www.wordnik.com/words/sinology>.

【논문초록】

| | | | | |
|---|-------|---|-------|---------------|
| 키워드 | 중문 | 中國學, 語言學, Sinology, Chinese Studies, 總體 | | |
| Key Words | 영문 | Linguistics, Sinology, Chinese Studies, The Whole | | |
| <div>Study on the Role and Object of Linguistics for Chinese Studies with the Concept of the Whole</div> <div>Park, Chan-Wook</div> <p>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role and object of linguistics as one of the subordinate fields of Chinese Studies. Chinese Studies as an academic field have been regarded as such as various studies of China. However, as the origin and the region and the subject are different, Chinese studies have been called Sinology and Chinese Studies. And today, Studies of China in Korea are commonly referred to Chinese Studies, which can be classified as a higher academic category in the academic system. It should be an organic aggregate among the academic disciplines that have a common research theme, rather than a simple merging of the different sub-discipline. In the future, linguistics will have to expand its subject and thinking by cooperating with other research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and anthropology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China. In particular, whether Chinese as a predicted global language can have a status relationship with English as the current global language will be understandable when it is positioned as one of Asian Studies considering relations with other national studies, such as Japan, Korea, India, and the Philippines, rather than Chinese Studies that are limited to China.</p> | | | | |
| 저 자 인적사항 | 성 명 | 박찬욱 / 朴贊旭 / Park, Chan-Wook | | |
| | 소 속 |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 | | |
| | Em@il | zanxuvictory@daum.net | | |
| 논 문 작성일시 | 투 고 일 | 2019년 05월 19일 | 심 사 일 | 2019년 05월 23일 |
| | 수 정 일 | 2019년 06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06월 18일 |